

오전(1부) 대방동 7시
오전(2부) 7시30분
주일에배 오전(3부) 10시
오후(4부) 3시
수요일예배 (저녁)8시30분

서울 교회 02)533-9191
장소: 강서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오전(1부) 7시30분
오전(2부) 10시
주일에배 오후(3부) 3시
저녁예배 7시
금요일예배 (저녁)8시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16년 9월 18일 (제864호)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02)533-9191 Fax. 02) 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 575-5730 http://www.jcc.tv(철야 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봉우 컬럼

예수님의 은혜로

홀로 사는 노신사가 한 꿈을 꾸었다. 마트에 간 꿈이었다. 그가 마트에 갔는데, 마트의 첫 칸을 둘러보던 중 '사랑과 평화'가 있기에 얼른 사서 카드에 넣었다. 나이가 들수록 이것이 절실했기 때문이다. 그 옆 칸에 갔더니 '희락과 오래참음'이 있기에 이것도 샀다. 아직도 성질이 급한 탓으로 이웃과 불협화음이 많았는데 이것으로 화해하고 싶어서였다. 그 다음 칸에서는 '자비와 양선, 은유'가 있기에 남은 세상 베풀고 살려고 이것도 샀다. 옆 칸엔 '충성과 절제'가 있기에 얼른 카드에 넣었다. 늘 욕심이 자기를 주장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이었다. 옆 칸엔 '무병미락장수'가 있었다. 이거야말로 없어서는 안 될 것이기에 얼른 카드에 넣고 마지막 칸에 가니 거기에는 '부활'을 팔고 있었다. 부활의 귀중함을 누구보다 잘 아는지라 얼른 이것도 카드에 실었다. 이것만 있으면 아무 걱정 없다는 것을 그는 알았다.

노신사는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사고 뿌듯하여 카트를 밀고 계산대로 갔다. 긴 줄을 기다린 끝에 계산을 하면서 이 모든 게 얼마냐고 물었다. 카트 가득 실었으니 상당한 액수가 나왔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런데 계산대에 서 있던 천사가 말하길 공짜란다. 그냥 다 가져가란다. 깜짝 놀란 그에게 천사는 "예수님이 다 하셨습니다." 라고 했다.

깨어보니 꿈이었다. 꿈을 꾸는 노신사는 생각이 깊었다. '그래, 내 원래 태생이 사랑이 많은 사람이지. 참을성도 없었고, 은유도 없었지. 또 내게 영생이 합당하거나 했을까? 그것을 어찌 돈으로 살 수 있었을까?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오직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 모든 것이 내게 주어진 것이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고전15:10). 사도 바울의 고백이 새삼 가슴에 와 닿는다. 그래서 나도 고백한다. "내가 내 된 것 주님 은혜였노라."

차선은 없다, 오직 최선을 다하자

매주일 새벽, 우리 일꾼들에겐 어김없이 목사님의 다음과 같은 문자메시지가 도착한다.

"오늘도 최선을 다하자!"

차선을 모르고 매사 오직 최선을 다해 경주해 오신 목사님의 신앙과 철학이 짙게 묻어있는 글이기에 비록 지극히 짧은 문자이지만 우리에게 다가오는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다.

이제 보름 후면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평화의 광장에서 국가와 민족을 위한 평화통일 기도성회가 열린다. 그동안 우리 주

하나님께 부름 받았다는 긍지와 자부심이 있다.

그러나 그러한 긍지와 자부심만으로, 과거의 영광만으로 안주해서는 안 된다. 항상 문제는 타성에서 비롯된다. 목사님이 하시니, 전에도 해봤으니, 어찌 되겠지, 이런 타성에 젖은 생각을 속히 걷어내야 한다. 또 새롭게 시작하는 거다. 고민과 번민, 고뇌의 열정을 불살라야 한다.

또한 이시대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것이 있으면 돌이켜 회

우심이 없이는 결코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기 때문이다.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잠21:31).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을 하지 않고서는 이 전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람이 아무리 경영을 논하고 일을 도모할지라도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잠16:1), "사



10월 3일, 우리는 다시 이곳 전쟁기념관 평화의 광장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목도하게 될 것이다.

의 종들과 성도들은 20일 작정기도를 통해 이 집회를 위한 기도의 독을 채웠다. 추석명절로 흠뻑 젖었던 마음을 다시 추스르고 모아서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이제 모두 나가 홍보에 진력하고, 행사를 기획하고 순서를 맡은 이들은 그날 최상의 작품을 올리기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이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 전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 고민과 번민, 고뇌로 불태우는 열정이 명작을 만드는 것 아닌가. 또한 우리는 많은 경험도 갖고 있다. 지난 2014년 서울광장 집회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린 작품은 우리 스스로 긍지와 자부심을 갖게 한 명작이었다. 우리 비록 가진 것이 없으나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열정과 이 땅의 평화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교단으로

개하고 우리 모두 성결의 영적 무장으로 가다듬어야 하리라. 우리 가운데 죄악이나 시기, 분쟁이 있어서도 안 되겠고, 원망들을 일이 있다면 성경 말씀처럼 미리 사화(私和)해야 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들을만한 일이 있는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마5:23~24).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물보다 먼저 화목하라는 것이다. 좌우간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걸리는 것이 있다면 말끔히 걷어내는 것이 옳다. 이는 1992년 6월 7일, 메인스타디움 집회를 앞두고 목사님께서 모든 주의 종들과 재직들을 모아놓고 명령하신 바이기도 하다.

왜 이런 작업을 먼저 해야 하는가 하면, 이 전쟁은 하나님께 달렸고, 하나님의 도

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잠16:9).

목사님은 항상 대사를 앞두고 이런 자세로 항구여일(恒久如一)하게 달려오셨다. 그렇게 항상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께서 뜻하고 원하시는 길로 주님을 따라오셨기에 오늘의 역사,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이루신 것 아니겠는가! 우리 역시 그러한 목사님을 따라 지금까지 달려왔고, 그 역사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직접 목도하며 그 벅찬 역사를 체험하였다. 따라서 우리는 할 수 있다. 차선은 없다. 우리 최선을 다하자! 그리하여 또 다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보자.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한은택 전도사

henry8829@naver.com

평화통일 기도성회

2016.10.3 오후3시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평화의 광장

구독신청 02) 533-9191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마5:4)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는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도 약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눈물에 약하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시51:17). 그래서 애통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소원을 이뤄주십니다. 자식의 눈에서 눈물나는 것은 죽어도 못 보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계7:17).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곧 죽으리라는 예언을 듣게 됩니다. 그러자 그는 벽을 향하여 앉아 애통하며 기도했습니다(왕하20:3). 그는 제비 같이, 학 같이 지저귀며, 비둘기 같이 슬피 울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사38:14). 그러자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 즉시 위로 하셨습니다.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낮게 하리니 네가 삼 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 가겠고 내가 네 날에 십오 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앗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하므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왕하20:5~6).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지고 성문이 불탔다는 소식을 접한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며 기도합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느1:4). 하나님은 애통하는 느헤미야를 보시고 위로하셨고,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여 예루살렘 성 재건에 필요한 모든 것을 지원하게 하사 52일 만에 완성케 하셨습니다.

불이 꺼지기 전에 기름을 부어라

한나와 브닌나는 엘가나라는 한 남편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브닌나는 자식을 쑥쑥 잘도 낳는데, 한나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자식 없는 것도 서러운데 브닌나가 한나를 괴롭게 합니다.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 앞에서 애통했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삼상1:10). 그랬더니 하나님의 위로가 한나에게 있어 사무엘을 얻게 됩니다.

유다왕 요시야가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다가 발견한 율법책을 보니 유다 백성들의 우상숭배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유다 땅을 저주하겠다고 말씀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요시야는 하나님께 통곡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말

씀합니다. “네가 듣고 마음이 연하여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로 너의 열조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네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왕하 22:19~20).

밧세바를 취하기 위해 남편인 우리아를 접전 지역에서 죽인 일을 나단이 책망할 때, 다윗은 죄를 깨닫고 통곡했습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곤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시6:6). 그런 그에게 하나님의 용서와 위로가 있었고, 하나님은 오�히려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자’(행 13:22)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시편 32편과 시편 51편은 다윗이 죄를 회개하며 눈물로 쓴 시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유월절 저녁식사를 하시면서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자기는 결코 버리지 않겠다고 단언합니다. 그런 베드로를 보시고 예수님이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말씀대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고, 그 때 새벽을 깨우는 닭이 울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심히 통곡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마26:75). 하나님은 베드로의 애통하며 드리는 기도와 눈물을 보셨고, 베드로는 초대 교회의 가장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의 누이인 마르다

와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울 어렸습니다. 하도 슬피 울어서 예수님도 우셨습니다. 그리고 죽어 냄새가 난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아이로라 하는 회당장의 무남독녀가 죽었을 때 예수님은 그의 눈물을 보시고 그 딸을 살리셨고(막5:22~43),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도 그의 눈물을 보시고 그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오사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뱀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눅7:13~14). 누가복

음 18장에는 세리의 기도나옵니다. 세리는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늘도 올려다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어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눅 18:13). 그러자 예수님이 세리의 애통함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이 모두 애통하는 자가 받은 축복과 은혜에 관한 것들입니다.

여러분, 사막에도 물만 있으면 유실수에 열매가 맺힙니다. 우리 삶 속에 열매가 없는 것은 심령이 메말랐기 때문입니다. 교회들도 눈물이 말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싸움만 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일점일획도 땅에 떨어진 것이 없고, 짝이 없는 것이 없을진대 분명히 하나님은 애통하는 자를 위로하신다고 하셨으니 울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호와와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욥

2:12~13). 예수님도 갓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죽음을 앞에 두고 눈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히5:7).

눈물은 기적을 낳는다 애통하며 기도하라

여러분, 애통하며 기도한다는 것은 간절함의 표시입니다. 그것은 거짓이 없는 진실된 기도이기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느도다”(시34:18).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놓고 눈물로 애통하며 기도하세요. 병들었습니까? 먹을 것이 없습니까? 교회가 깨졌습니까? 부도가 났습니까? 모함을 받았습니까? 자식이 속을 썩습니까? 우십시오. 하나님 앞에 찢 달라고 우는 어린 아이처럼 우십시오. 어린 아이 같은 자가 천국을 소유한다고 하셨습니다. 아이처럼 울어야 내 마음에, 내 가정에, 내 교회와 나라에 천국이 임하게 됩니다. 하갈이 울 때 생수가 터진 것처럼 내 마음에, 내 가정에, 내 교회와 나라에 생수의 강이 터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크고 측량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슬퍼하는 자를 흥기시켜 안전한 곳에 있게 하시느니라”(욥5:9~11). 저는 목회 31년 동안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교단에서 제명당할 때도, 모함을 받았을 때도, 예배드릴 때가 없을 때도, 가족이 떠났을 때도, 사지가 마비되었을 때도, 능력이 없어서도 울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고 은혜를 쏟아부어주셨습니다.

가장 어리석은 자는 물속에서 물을 찾는 자입니다. 답을 옆에 두고도 답을 못 찾는 자들입니다. 애통하면 문제가 풀리는 데 왜 답을 다른 곳에서 찾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국 열쇠는 바로 애통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세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시126:5~6). 할렐루야!

구제 및 선교 후원금

1379-01-001903

농협

695001-01-122494

국민은행

예금주: 예수중심교회

두 개의 전혀 다른 SKY

믿음과 기다림

SKY라고 하면 무엇이 생각나시나요? SKY는 문자 그대로는 하늘 또는 창공을 의미하지만, 문어적 표현으로 천국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의 의미는 많이 다릅니다.

유대인은 자녀교육의 주안점을 천국(SKY)에 두고 있는 반면, 한국은 명문대학(SKY: 서울, 고려, 연세대학교의 이니셜)에 진학하는 것을 최고의 목표로 추구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 노벨상 수상자의 22%, 미국 명문대학교수의 30%, 미국 아이비리그 학생의 24%, 미국 고위 공직자의 15%, 미국의 메이저 통신, 신문, 방송사 언론인의 25%, 세계 100대 기업의 40%, 세계 7대 메이저 석유회사 중 6개, 헤지펀드의 50%, 세계 식량 및 자원 유통의 40% 등을 차지하고 있는 가장 큰 원천은 자녀교육에 있다고 교육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자녀교육의 첫 번째가 성경과 율법을 지속적으로 정독하고 암송하도록 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앙심을 고양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순결에 대한 교육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정신적 순결과 이성에 대한 육체적 순결을 모두 요구합니다. 자녀에게 “첫날밤에 첫 키스를 하라”, “아기집과 아기의 씨가 깨끗하도록 네 몸을 보존해야만 거룩한 백성이 탄생한다.”라고 교육하면서 부부의 순결도 철저히 실천합니다. 세 번째는 대화를 통한 교육입니다. 아버지는 자녀와 매일 저녁을 같이 먹으면서 하나님 말씀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인

생관과 국가와 민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많은 질의응답을 통해 자녀와 소통합니다. 넷째로 축복과 격려의 말로 훈육합니다. 자녀가 학업에서 실패를 하더라도 “너는 돈을 많이 벌어서 사장이 되어서 너의 반에서 1등인 아이를 비서로 쓰면 되지 않겠니?”라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는 보이지 않는 신이고, 어머니는 삶의 터전이다.”라고 교육하면서 효도와 국가에 대한 충성 등을 유도합니다.

우리의 자녀교육은 어떨까요? 학교, 아니 학원 공부하는 것이 최우선이고 하나님은 맨 뒤에 있지는 않나요? 자녀에게 “연애는 실패 즐기고 결혼은 좋은 데로 잘해라.”고 말하지는 않나요? 돈벌이와 바쁘다는 이유로 자녀와 대화하는 것을 소홀히 하지 않았나요? 공부를 좀 못하거나 작은 실수를 했다고 “망할 놈의 자식, 빌어먹을 자식!”이라고 말하지는 않나요? 자신의 노부모는 홀대하면서 자녀에게는 거룩하게 효도와 충성을 강요하지는 않나요? 긴 한숨이 나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와 유대인이 자녀교육에 목숨을 걸고 있다는 점과 목표를 SKY로 두고 있다는 점은 동일합니다. 그렇지만 교육의 지향점이 어디인가에 따라 그 결과가 판이하게 달라집니다.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순결과 사랑으로 보살핀다면 우리 자녀들도 세계를 지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관섭 장로
kwansup1029@gmail.com

미국에서 네 살짜리 어린이들에게 마시멜로우를 하나씩 주고 바로 먹어도 되지만 15분을 참고 기다리면 마시멜로우 2개를 더 준다고 약속하고 아이들이 얼마나 참을 수 있는지 실험을 하였다.

이 유명한 ‘마시멜로우 실험’에서 70%의 아이들은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마시멜로우를 먹어버렸다. 나머지 30%의 아이들만이 마시멜로우의 유혹을 참아내고 약속한 2개의 마시멜로우를 얻을 수 있었다. 실험이 끝나고 10여년이 흐른 뒤에 아이들을 추적하여 조사하였는데, 마시멜로우의 유혹을 이겨낸 아이들은 그렇지 않은 아이들보다 더 건강했고, 미국 대학수학능력시험인 SAT에서 평균 200점이나 높았다고 한다.

여기까지는 누구나 다 아는 실험이다. 그 뒤에 2차 실험에서는 마시멜로우 그릇에 뚜껑을 덮어두어 안보이게 하였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더 오랜 시간을 참아냈다. 마시멜로우 3차 실험에서는 아이들이 끝

까지 기다렸는데 마시멜로우를 더 주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 그 다음 실험에서는 아이들이 어떻게 반응할까를 다루었다. 약속을 지키지 않았던 상황에 놓인 아이들은 다음 실험에서 마시멜로우를 바로 먹어버렸고, 약속을 지켰던 상황의 아이들은 좀 더 인내심이 생겼고, 많은 아이들이 참아내었다. 아이가 절제력이 없다기보다는 신뢰를 주고받는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절제력이 없다는 것이 이 실험의 결론이다.

바라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다릴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래서 성경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약1:4)고 말씀하신 것이다. 이 땅에서의 성공도, 믿음도 기다리고 인내할 줄 알아야 한다. 때론 인내가 힘이나 지식보다 더 많은 것을 성취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성일
cre8tor@naver.com



나와 하나님의 사이는?

우리의 성장동력 평화통일!

심리학 교수가 어느 날 학생들에게 질문했다. “왜 사람들은 화가 날 때 언성을 높여 소리칠까요?” 그러자 대개의 학생들은 “마음의 평온을 잃어서 언성을 높인다.”고 했다. 교수는 또 질문했다. “그래도 사람이 바로 옆에 있는데 굳이 왜 소리를 질러야만 할까요? 바로 옆에 있으니 작게 말할 수도 있지 않나요?” 라고 묻자 학생들이 선뜻 이유를 대지 못했다. 그러자 교수는 “두 사람이 화가 났을 때 마음의 거리가 아주 멀기 때문에 마음의 거리를 뛰어 넘어 상대방이 들을 수 있도록 꼭 소리를 질러야만 한다.”고 말했다. 화가 심하게 날수록 마음과 마음의 거리는 더욱 멀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은 소리를 더 강하게 지르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두 사람이 사랑에 빠졌을 때는 어떤가? 그들은 서로에게 소리를 지르지 않고 평소보다 더 작고 부드럽게 말을 한다고 한다. 왜냐하면 마음과 마음의 거리가 아주 가깝기 때문이다. 사랑하면 할수록, 그 거리는 좁혀지고, 나중에는 말할 필요도 없이 눈빛만으로 대화가 된다는 것이다.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리는 410~450km, 서울에서 평양까지는 250km이다. 거리

로 보면 부산보다 훨씬 가까운 거리이지만 심리적으로 너무 멀기 때문에 때론 서로 언성을 높이고, 제3국, 제4국을 통해서만 대화를 시도해야 한다.

그렇다면 나와 하나님과 사이의 거리는 얼마나 될까? 하나님과 나와 의 거리가 느껴지지 않는다면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하지만 하나님과 나와 의 거리가 멀게만 느껴진다면 아마도 그것은 죄 때문일 것이다. “여호와 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사59:1~2).

죄를 인격화하면 사단이요 마귀다. 이는 하나님과 나를 이간질하고, 쫓아 박아 멀게 하는 악한 존재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회개를 촉구하시며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신다.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삶의 무게와 고통으로, 그리고 현실로 인해 어려워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등지고, 먼 거리에 서 있다고 느끼신다면 말씀과 기도로 거리를 좁혀 보는 것이 어떨까요?

이정금 전도사
jungkm@nate.com

우리 예수중심교단은 2016년 10월 3일, 웅산 전쟁기념관 평화의 광장에서 평화통일 기도성회를 앞두고 있다. 여러 차례 평화통일집회가 이루어지는 동안 나를 비롯한 우리 예수중심교회 많은 젊은이들의 생각이 변화되었다.

첫 번째로, 대한민국에 대한 자부심이 커졌다. 신문이나 뉴스 등 언론매체에 서는 연일 ‘헬조선’이라 칭하며 대한민국의 어두운 면을 보도하지만, 그와 반대로 우리 교회 젊은이들은 ‘한강의 기적’이라고 세계에서 칭찬하고 있는 아름다운 노력의 나라 대한민국의 장점만 보고, 우리나라를 사랑하게 되었다.

두 번째로, 이 나라의 독립과 국가의 안보를 위해 피 흘려 돌아가신 독립투사 및 전쟁희생자들에게 감사하게 되었다. 지금의 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본인의 피와 땀을 아끼지 않은 분들의 발자취를 찾아보고 공부하며 그들의 헌신과 애국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다.

세 번째로, 같은 민족이지만 한 없이 거리감이 있었던 북한이라는 곳을 위해 기도하게 되고 통일된 한민족, 한반도의 청사진을 그리게 되었다. 평화통일 기도성회 전에 북한에 대한 이미지는 한반

도의 평화를 깨뜨리며 전쟁의 공포 속으로 밀어 넣는 나라로만 생각하고 평화통일이 되면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큰 도탄에 빠질 것이라 어림짐작했다. 그런데 평화통일 기도성회로 인해 북한에 관한 영상 및 뉴스 자료 등을 접하고 북한에서 죽음의 공포가운데 기도하는 지하고 회 기독교인들과 일생에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가난과 질병으로 인해 생을 마감하는 북한 동포들을 볼 때 평화통일은 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여기에 더해 지난 1월, 한 역사학자는 평화통일의 경제효과를 이렇게 설명했다. 남한의 기술, 자본으로 북한의 지하자원(하이브리드 사업의 원천 재료 희토류 보유량 세계 2위)과 인력의 시너지 효과(남북한 통합 인구 증가로 내수시장 활성화), 북한의 항로와 육로 개발로 전 세계 물류중심국가로 성장, 통일에 따른 군사력보강으로 미국, 러시아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군사강국 중국과 비슷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처럼 평화통일 기도성회를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통일이라는 선물을 준비하시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송현혜
charisma0691@hanmail.net

라이벌은 없다

“제가 간절히 찾는 것은 배움의 대상이지 경쟁상대가 아닙니다. 전 세계에는 보고 배울 대상이 너무도 많은데 어째서 경쟁할 상대만 찾아다닙니까?” 중국의 빌게이츠라고 불리는 알리바바그룹 마윈 회장의 말이다. 기업인들이 경쟁업체를 경계해 상대 업체를 모함하거나 깎아 내리는데 혈안이 되어 정작 자신 기업에 경쟁력을 높이는 데는 소홀함을 꾸짖는 것이다.

성경 속 브닌나도 그런 인물이다. 사사시대 말기 에브라임에 사는 엘가나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는데 바로 한나와 브닌나였다. 브닌나는 남편과 사이에 자녀들을 낳고도 남편 엘가나가 늘 무자(無子)한 한나를 더 사랑하여 챙겨주는 것에 불만을 품었다. 남편이 아이까지 낳은 자신을 더 돌아보지 않는 것 같다면 남편과 대화를 통해 원인을 찾고 한나의 장점은 무엇이었는지 생각해봐야 했지만, 브닌나는 오히려 자신이 경쟁상대라고 느낀 한나를 계속 구박하는 데만

열을 올렸다. 결과적으로 브닌나는 남편의 사랑도 잃고 경쟁상대라고 생각한 한나의 축복까지 지켜보게 되었으니 아마 더 불행해졌다고 느꼈을 것이다.

반면 한나는 어땠는가? 자식을 낳았다는 유세로 자신을 끊임없이 구박하고 괴롭히는 브닌나를 보면서도 남편이나 타인에게 브닌나의 악행을 욕하거나 하나님께 그녀를 저주하는데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에게 자녀가 없는 어려운 처지와 고통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간구하는데 몰두했고, 결국 사무엘 외에도 세 아들과 두 딸을 낳는 축복을 받았다(삼상 2:21).

사울 역시 자신에게 맡겨진 왕이라는 임무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배움보다는 자신의 자리를 위협할 경쟁상대에 더 집착했다. 그리하여 ‘사울은 천천이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는 백성들의 노래를 듣자 다윗에게는 있고 자신에게 없는 것이 무엇인지를 헤아리기보다 다윗을 미워하고 죽이는데 시간을

낭비하다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

반면 다윗은 들판에서 양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기 위해 돌팔매질을 배우고 연습했다. 덕분에 골리앗이라는 대단한 경쟁상대가 눈앞에 있어도 상대방의 장점에 긴장하거나 두려워하기보다 의연하게 자신이 연습해온 돌팔매질로 상대를 제압할 수 있었던 것이다. 또한, 사무엘에게 기름부음 받았으니 언젠가 자신이 차기 왕이 될 것임을 알고도 자신의 라이벌이 될 법한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오히려 진정한 친구가 되었고, 장인 사울과 아들 압살롬이 자신을 죽이려는 인고의 과정 속에서도 상대를 죽이고자 기도하기보다 하나님께 자신이 배워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간구하며 내면의 성숙을 기할 수 있었다.

기억하자! 진정으로 강한 자에게 라이벌은 없다! 오직 배움의 상대만 있을 뿐이다!

하인명
renming@daum.net

Good News

르네상스 시대를 대표하는 이탈리아의 화가 미켈란젤로는 아무리 많은 돈을 주어도 자신의 마음이 내키지 않으면 그림을 그리지 않았으며, 그의 작품 ‘피에타’를 제외하고는 자신의 작품에 절대로 사인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신의 작품에 사인을 남기지 않는 이유는 바티칸 시스티나 성당의 천정에 ‘천지창조’를 그린 후에 깨닫게 된 일 때문입니다. 4년 동안 성당에 사람들의 출입을

막고 천정 밑에 세운 작업대에 앉아 머리를 뒤로 젖힌 채 그림을 그리는 고된 작업 때문에 눈과 목에 이상이 올 정도로 이 작품에 열과 성을 다하였습니다. 작업을 마치고 흡족한 마음으로 사인을 한 후 붓을 내려놓고 지친 몸을 쉬려고 성당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때 성당 밖에 펼쳐진 풍경을 보고 감탄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눈부신 햇살과 푸른 하늘을 높이 날고 있는 새들과 아름답게 피어난 꽃들과 싱그러운 나뭇잎들을 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깨닫고 뒤돌아가서 자

신의 작품에서 사인을 지워버렸다고 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의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롬 1:20). 흔히들 천지만물을 ‘자연’이라고 하지만, 저절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위대한 작품입니다. 인생의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인생의 참된 지혜입니다.

상화평 목사
sanghwapyung@hanmail.net

수요예배

매주 수요일 저녁 8시 30분 강서구 화곡동 KBS88체육관
문의: 02-533-9191

이벤트를 통해 깊어지는 믿음

왜 바울은 로마 교인들을 만나기를 그토록 열망했을까? 바울이 굳이 목숨을 거는 여행을 하면서까지 이미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그들을 만나야 할 필요가 있었을까? 이렇게 편지를 써서 여러 가르침만 줘도 그들은 이미 믿음이 굳센 자들이어서 충분히 자신들의 잘못된 점을 고치고, 바울이 원하는 스페인(당시 땅 끝으로 알려진 서바나) 선교 사역의 발판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들인데, 왜 바울은 그들을 직접 보기를 위하여 늘 그렇게 기도해왔던 것일까?

바울은 신령한 은사를 로마 교인들에게 나눠주어서 그들의 믿음을 견고히 해주고, 자신도 그들을 통해 위로를 받기 위해 그들을 만나기를 소망한다고 말한다. 이미 온 세상에 소문날 정도의 믿음을 가진 로마 교인들에게 바울이 직접 가서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어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 로마교회는 오순절 사건 때 성령을 받은 자들이 세웠기에, 그들 태반은 성령의 은사와 성령 세례가 무엇인지 알 것이

다. 누구보다 그 상황을 잘 알고 있는 바울인데, 왜 이런 마음으로 그토록 그들을 만나기를 기도해왔을까? 그것은 무엇보다 바울이 로마의 교인들을 사랑했기 때문이다. 사랑하면 보고 싶다! 또 바울 아니면 안 되는 것이 있었는데, 바울만이 가진 독특하고 특별한 은사인 성령 충만함이 로마의 교인들에게 전염되고 번지도록 하기 위해서다. 로마 교인들은 이미 성령 충만해 있으나, 하나님의 사도인 바울과의 만남은 그들을 더욱 풍성하고 견고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꼭 바울이어야 하는가? 그렇다. 꼭 바울이어야 했다. 하나님은 그렇게 당신을 특별하게 열심히 믿고 모든 것을 헌신하는 사람들을 통해 일하시는 거다. 그래서 그 사람 아니면 안 된다. 이 특별한 사람과의 만남은 정말로 특별하여, 하나님은 특별한 은혜를 부어 주신다. 바울은 그것을 알기에 그토록 로마 교인들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와 생각을 존중하

신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하게 생각하면, 하나님도 눈여겨보신다. 우리가 금식하는 것과 기도를 정하여 기도하는 것, 주의 종에게 기도 받는 것, 특정 주제로 집회를 여는 것 등, 작정하며 하나님께 기대하면 하나님도 특별한 응답으로 화답하신다. 물론 하루하루가 특별하고 좋은 날이며, 어느 누구와의 만남도 소중하고, 그리스도인끼리 교제도 값지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 일상의 삶에 하나님께서 멋진 이벤트도 마련하신다. 우리는 그 이벤트를 위해 많은 눈물의 기도와 희생, 위험을 감수해야 하지만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도 각별하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나 믿음의 동역자들이 특별한 행사를 준비할 때, 적극적인 자세로 동참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그 이벤트를 통해 크고 놀랍고 특별한 일을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부디 그 이벤트에 모두 당첨 되어 각자 간증거리를 가지게 되기를 소망한다.

박소향
bp650624@naver.com

웃음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원호병원에서 유명한 코미디언을 초청해 공연을 한 결과, 환자들은 공연이 진행되는 45분 동안 고통을 거의 느끼지 않았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흔히 체내의 조깅, 에어로빅으로 불리는 웃음이 긴장, 불안감, 좌절감, 고통 등을 해소하거나 감소시켜준다는 것은 이제 만인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대체로 명량한 사람은 하루에 100번에서 400번 정도 웃는데, 이 과정에서 근육조직이 당겨졌다 풀려졌다 하면서 몸의 긴장이 느슨해지는 효과가 생긴다고 하니 앞으로 더욱 많이 웃어야겠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총회장 목사님께서 단에서실 때마다 성도들에게 “웃어봐! 하하하하, 한 번 더 웃어봐! 하하하~.” 하십니다. 처음에는 목사님을 따라 멧쩍은 억지웃음소리를 내다가 그 억지웃음과 표정들이 우스꽝스러워 진짜로 배꼽 빠지게 웃게 됩니다. 그렇게 한참을 웃고 나면 기쁨이 샘솟듯 올라오는 걸 체험하지요. 아마도 근심 걱정과 스트레스로 인해 찌든 성도들의 몸과 마음의 긴장을 풀어주 시려는 목사님의 사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앙생활의 원동력도 기쁨에서 출발해야 합니다(빌4:4). 왜냐면 외부의 어떤 조건으로부터 주어지는 기쁨은 분명 조건이 없어도 사라지고 사라지고 말지만,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경험되어지는 깨달음의 그 기쁨은 외부적인 역경조차도 견디게 하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뇌의 생리적, 물리적 자극에 의한 기쁨도 치유의 능력이 있듯이 신령한 기쁨은 신앙의 성숙과 더불어 전인건강을 누리게 해 줍니다. 그러므로 웃을 수 있는 여건을 매일 만들어 보는 것은 우리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과 영적행복을 위해서도 아주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으니까 행복해지는 것, 잊지 맙시다.

김정옥 전도사
jcc0115@naver.com

♣아내들이여

부엌을 약방으로 만들라

Wives! You should turn your kitchen into a pharmacy.

并且妻子们,把厨房改造为药铺。

♣식탁이 썩으면

가족과 내 몸이 썩어간다는 것을 알라

Know that it's up to your dish whether your family becomes healthy or not.

要明白饭菜不实惠,家人和自己都会慢慢失去健康。